

아돌프 로스의 실내공간개념과 가구에 관한 고찰

- “풍요로운 내부”의 18세기 앵글로 색슨 및 비더마이어 고전가구 사용을 중심으로 -

A Consideration of Adolf Loos's Inner Spatial Conception and Furniture

- Focused on the Use of 18C Anglo Saxon's Classical Furniture with “Affluent Interior” and That of Biedermeier -

지수인* / Jee, Soo-In

Abstract

It is characteristic that houses designed by Adolf Loos show commonly a contradictory aspect between the exterior and interior. The exteriors of the houses are simple and on the other hand the interiors are affluent to the greatest degree. At that time, a stylized gorgeous decoration of the inner space had been prevailed in general among the historicism and Vienna Secession people, and such an inner spatial conception as by Loos must have brought a turning point for the development of a new inner spatial conception which can by itself be called revolutionary.

This study is going to clarify the fact that Loos has been in full consideration of the emotional side basically for the human being in the conception of inner space, by complementing the respect that his conception of the inner spatial composition, concentrating purity, comfort and classicalism on the furniture.

Despite the independency of the Loos furniture is near copying, different from existing creative conception, it can be meaningful in respect that it creates out a rather accustomed and still a new space thought adding a little transformation to the existing classical furniture. So this study is going to re establish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os furniture which work as the greatest impact in the composition of affluent inner space, the prototypical characteristics of that furniture, and the basical thinking system of Loos which can be found out in a little transformation.

키워드 : 아돌프 로스, 풍요로운 내부, 앵글로 색슨 가구

1. 서론

오스트리아 태생 반 장식주의 건축가 아돌프 로스(Adolf Loos, 1870-1933)가 설계한 주택들은 공통적으로 집의 외부는 단순하면서 내부는 최대의 풍요로운 외부와 내부 사이의 대립구조¹⁾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즉 도로쪽에 면한 집의 외부는 그 문명의 품격을 표현함에 있어 최대한 장식없는 단순한 외형인 반면 집의 내부는 외부 문명의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해주고 친밀함을 최대한 보장하는 풍요로운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로스가 그의 글 <의상의 원리>에서 건축가의 첫번째 과제는 따뜻한 실내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 과제는 건물의 외형을 결정하는 것

이다²⁾라고 주장하였듯이, ‘풍요로운 내부’는 그의 실내공간 및 가구에 일관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단순한 외부’의 대립되는 실내공간 개념이다. 이러한 로스의 실내공간적 개념은 당시의 역사주의 및 비엔나 분리파를 중심으로한 스타일화된 화려한 장식의 실내공간이 보편화된 시기를 고려해 볼 때 혁명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실내공간적 개념의 사고전환을 가져다주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로스의 공간구성개념이 장식이 배제된 외부공간구성개념에만 한정된 점을 보완하여, 실내공간개념에 있어서 로스의 사고가 기본적인 인간을 위한 정서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순수성과 실용성, 고전성을 강조한 사실을 ‘가구’를 중심으로 하여 밝혀내고자 한다.

1)Loos, Heimatkunst (1914) / A. Opel, Trotzdem, Brenner Verlag Innsbruck, 1931, p.129

2)Loos, Das Prinzip der Bekleidung (1898) / A. Opel, Ins Leere gesprochen, Verlag Georg cres, Paris-Zuerich, 1921, p.139

* 정희원,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강사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연구는 건축가로서 로스의 행적 및 로스 건축 특성에 관한 기존 연구와 문헌을 참고하고 로스의 실내공간과 가구에 관한 문헌에서 실내공간개념 및 가구에 대한 부분을 새로운 시각에서 발췌 및 분석하여 로스의 실내공간개념과 가구체계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에 따른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순수성과 실용성, 고전성이 공존하는 절충적 ‘풍요로운 내부’의 특징을 지닌 로스 고유의 실내공간개념에서 비롯된 가구의 적용에 따른 연관성을 분석하여, 로스가구의 독자성이 이미 존재해 왔던 고전가구를 약간의 변형과 기존의 틀을 깬 자유로운 가구배치를 통하여 오히려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 낸다는 단순한 사고변화에서 이루어진 효과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이 것은 기존의 창조적 개념과는 다른, 이미 존재해 왔던 것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는 복제에 가까운 복고의 개념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풍요로운 내부공간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로스가구의 특성과 그 가구의 원형적 특성, 그리고 약간의 변형에서 찾을 수 있는 근본적인 로스의 사고체계를 다시금 정립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로스가 구축하려는 ‘풍요로운 내부’의 실내공간개념을 고찰하고 로스가구의 원형에 해당되는 18세기 수공예 전통의 앵글로 색슨 및 비더마이어 고전가구를 지칭하는 로스가구를 종류별로 고찰함으로써 로스가구의 특성을 고찰한다. 그리고 “풍요로운 내부”를 설명해주는 실내공간개념과 로스가구 사이의 상호연계성을 비교 분석한다.

3. 실내공간개념의 분석

3.1. 장식배제의 개념

로스 설명하는 첫째 실내공간개념은 장식배제의 개념이다. 장식배제의 개념은 1908년 발표되었던 로스의 글 <장식과 죄>에서 파푸아인의 문신(그림1의 예: 마우리족의 얼굴문신)과 죄악사이의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린 시절동안 아이는 인류의 역사가 거처온 것과 같은 모든 변형을 거치게 된다. 2살때에는 파푸아인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4살때에는 게르만인, 6살때에는 소크라테스, 8살때는 볼테르와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어린이는 도덕과 무관하다. 파푸아인도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역시 그러하다. 파푸아인은 적을 죽이고 먹어버린다. 그래도 범죄자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근대인이 타인을 죽여서 먹었다면, 그는 범죄자거나 변질자이다. 파푸아인은 문신을 한다. 자기의 피부나 배나 노동 자기의 모든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에 문신을 한다. 그래도 그들은 범죄자가 아닌 것이다. 근대인이 만약 문신을 하였다면 그 것은 범죄자나 변질자이다.”³⁾ 따라서 장식배제의 개념은 근대인이 파푸아인

의 문신과 같은 야만적 풍습의 잔재인 장식을 취하는 것을 죄악으로 규명한다. 그러므로 장식배제의 개념이 강조하는 것은 19세기 중반까지 호화로운 장식과 문명수준 혹은 교양있는 사람을 동일시 생각했던 장식주의 대신에 “적절치 않은 소모”개념의 장식에 가려졌었던 재료의 순수성이라 분석할 수 있다.



<그림 1> 마우리족의 얼굴문신

3.2. 비예술품으로서의 개념

로스가 설명하는 둘째 실내공간개념은 비예술품으로서의 개념이다. 비예술품으로서의 개념은 로스의 글 <로툰다의 실내공간>에서 비더마이어시대 거실의 예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목공수에게서 가구를 사고, 직물쟁이에게서 직물, 램프쟁이에게서 램프를... 같이 어울릴수 없다고? 그럴지도 모르지...방의 모든 가구들 사이의 공통점은 사용자 스스로가 선택했다는 것이다...거실은 바이올린 같은 것이다. 어느 누구나 바이올린을 다룰 수 있듯이 가족 구성원 모두 거실에 거주할 수 있다.”⁴⁾ 따라서 비예술품으로서의 개념은 첫째,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거실이 전체 실내공간의 중심임과 둘째, 사용자 관점이 강화된 사용자 중심의 실내공간을 강조하는 것이라 분석된다. 이와 정반대의 예술품으로서의 개념은 첫째, 귀족주의적 실내공간타입의 모방⁵⁾과 둘째, 18세기 이후 역사주의 및 아르누보 그리고 오토 바그너 (O. Wagner)와 요세프 호프만 (J. Hoffmann)등 비엔나 분리파가 주도한 실내공간 전체의 스타일화⁶⁾(그림2의 예: 르네상스 양식의 식당가구)를 설명한다. 또한 예술품으로서의 개념은 로스의 글 <로툰다의 실내공간>에서 완벽히 스타일화된 실내공간의 예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침대탁자에 사자머리 장식이 있고 이 사자머리 장식이 소파위에, 장위에, 침대위에, 의자위에, 세숫대위에, 즉 간단히 얘기해서 방의 모든 가구에 똑같은 장식이 있다면, 그러면 이 방은 양식에 잘 맞는 것이다...이러한 방은 불쌍한 주인을 숨막히게 한다...집주인이 백번이라도 이 공간을 사들었다 치더라도 그의

3)Loos, Ornament und Verbrechen (1908) / A. Opel, Trotzdem, Brenner Verlag Innsbruck, 1931, p.78

4)Loos, Interieurs in der Rotunde (1898) / A. Opel, Ins Leere gesprochen, Verlag Georg cres, Paris-Zuerich, 1921, p.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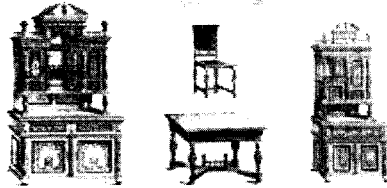
5)에른 후리델이 “가정은 거실이 아니라 전당포나 골동품 가게였다”라고 지적하듯이 경제적 여유를 가진 시민계급이 귀족사회를 동경함에서 기인된 허영과 허영에 찬 비엔나의 도시문화를 상징하는 귀족실내공간타입의 예는 다음과 같다: 연회와 재식공간, 살롱

6)완벽히 스타일화된 실내공간을 만드는 두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a)시민층을 위한 “짜-시리즈(Garnitur)”의 값이 저렴한 방법,

b)부유층, 예술인, 상류층을 위한 ‘총체적 예술작품’으로서의 고가의 방법

공간이 아니다. 이것은 영원히 이 집을 디자인한 건축가의 정신적 소유이다.”⁷⁾ 그러므로 비예술품으로서의 개념은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가족방과 같은 거실 중심으로, 사용자 관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함에서 비롯된, 사용자 스스로가 선택한 가구를 자유롭게 배열, 배치하는 실용적 실내공간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그림 2> 르네상스 양식의 식탁가구, 1880년대 비엔나

3.3. 재료 고유 형태의 개념

로스가 설명하는 셋째 실내공간개념은 재료고유형태의 개념이다. 재료고유형태의 개념은 디자이너의 상상력이 먼저이고 전통이 그 다음이라고 비엔나 분리파가 표명했던 것과는 다르게, 디자인 작업에서 전통이 먼저이고 디자이너의 상상력은 두번째로 중요하다는 로스의 입장을 설명한다고 분석된다. 재료고유형태의 개념은 또한 예술가-디자이너의 디자인 창작행위를 풍자적으로 고발하는 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사 조이는 방법, 전투하는 방법, 먹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상상력에 의존하여 나사돌리개와 검과 손가락을 디자인한다.”⁸⁾ 다시말해 재료고유형태의 개념은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재료형성상의 특성이 만드는 고유의 형태언어를 지니고 있으므로 재료에서 우리나라는 색깔과 무늬, 결, 광채, 두께들이 자아내는 속성에 충실할 것을 설명한다고 분석된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든 다른 재료의 가공방식이나 억지를 강요함이 없이 재료 고유의 레퍼터리를 구현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분석된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성 수공예 전통에서 복제방법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미 존재하는 것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발견에 의해 불필요해지거나 혹은 새로운 문화가 그 것을 완전히 기본에서부터 변화시키지 않는 한, 세기에 걸쳐 같은 형태로 존재한다.”⁹⁾ “그러므로 전 세기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필요하다면 오늘날에도 복제될 수 있다... 즉 복제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두 경우만이 가능하다...”¹⁰⁾ 재료고유형태의 개념이 기성 수공예 전통에서 복제하는 것임을 로스는 ‘이집트스툴’을 제작한 요세프 바일리히(Josef Veillich)를 위한 추도문에서 치펜데일(Chippendale) 의자를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새로운 식탁의자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완

전 무용지하의 바보짓이다... 완벽한 치펜데일 시대 경의 의자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다... 모든 수공예 기술은 복제이기 때문에 한달이 지난 것이든지 일세기가 지난 것이든지 복제하고 계속 사용될 수 있다. 이 의자는 이토록 완벽하기 때문에 치펜데일 시대 이후의 모든 공간에 어울린다”¹¹⁾ 따라서 재료고유형태개념에서 로스가 강조하는 것은 재료의 속성에 충실하게 제작되는 수공예 전통의 고전적 특성이라 분석할 수 있다.

4. 로스가구의 분석

로스가구라 지칭되었던 복제에 가까운 치펜데일(Chippendale), 헤플화이트(Happlewhite), 윈저(Windsor), 퀸 앤(Queen Ann)타입의 앵글로 색슨 및 비더마이어 변형가구는 순수성과 실용성, 고전성 특성과 함께 홀가부와 비맞춤가구로서의 특성, 자유로운 가구배치의 특성을 갖는다 분석된다. 당시 역사주의와 비엔나 분리파의 예술작품으로서의 짝가구 및 맞춤형가구가 아닌 다양한 종류의 소규모 의자와 탁자 구성의 홀가부로서의 특성 때문에, 로스가구는 실내공간의 조화를 깨뜨리지 않고도 재배열 재배치가 가능한 실용적 특성을 갖는다고 분석된다. 또한 로스가구는 거의 모든 사용자의 앉는 습관과 피로감의 정도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의자를 거실에 배치하여,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의자를 선택하게끔 하는 실용적 가구배치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자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중점을 두고있다. 그리고 거실에 다종의 의자를 배치한데 반해 제한된 시간동안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지체하는 연회실과 식당과 같은 실내공간에는 예외로 단 한 종류의 의자로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로스의 세분화된 가구배치체계의 당연한 귀결로 분석 될 수 있다. 그런데 주택이라는 사적공간과 카페 무제움 및 카페 카푸아라는 공적공간을 차별화하여 사적공간에는 수공예 가구를, 공적공간에는 대량생산의 굵은 나무로 제작한 곡목의자를 사용한 점은 사적공간에서의 수공예 가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로스의 독자적 행보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4.1. 세 다리-이집트 스툴

세 다리-이집트 스툴의 형태는 기원 전 1300년경 고대 이집트 신왕조의 세 다리-이집트 스툴을 원형으로 하는 1884년 영국 가구제조업체 리버티스(Liberty's)의 티비스 스툴(Thebes Stool)로부터 파생했다. 제작자 요세프 바일리히의 이름을 붙여 바일리히 스툴(Veillich Stool)이라 명명되는 로스의 세 다리-이집트 스툴은 1903년에서 바일리히가 사망한 1929년까지 제작되었다. 리버티스의 티비스 스툴보다 땅딸막하게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태와 수공기술은 복제이다. 마하고나, 떡갈나무, 앵두나무의 재료로 제작되며, 그림4b)의 바일리히 스툴은 떡갈나무로 완성된 것이다. 세 다리-이집트 스툴

7)Loos, Interieurs in der Rotunde (1898) / A. Opel, op. cit, p.75

8)Loos, Josef Veillich (1929) / A. Opel, Trotzdem, Brenner Verlag Innsbruck, 1931 p.216

9)Ibid, p.215

10)Loos, Der neue Stil und die Bronzeindustrie (1898) / A. Opel, Ins Leere gesprochen, Verlag Georg cros, Paris-Zuerich, 1921, p.64

11)Loos, Josef Veillich (1929) / A. Opel, Trotzdem, Brenner Verlag Innsbruck, 1931, p.216

물을 사용한 곳은 로스자택, 카르마(Karma)빌라, 스타이너(Steiner)주택, 두쉬츠(Duschitz)주택, 만델(Mandel)주택, 스트라쎌(Strasser)주택, 루퍼(Rufer)주택, 파리 크니제(Knize)살롱과 브룸멜(Brummel)주택이다.



a) 로스의 세 다리-이집트 스톨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고대 이집트 시대의 세 다리-이집트 스톨의 형태

b) 로스의 세 다리-이집트 스톨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바로 전 시대의 티베스 스톨 (Thebes Stool)의 형태



c) 로스가 디자인한 바일리히(Veilich)스톨의 형태



d) 로스 자신의 주택에서 사용된 로스의 바일리히 스톨

<그림 3> 세 다리-이집트 스톨

4.2. 스테슬러(Stoessler) 의자

스테슬러 의자의 형태는 19세기 중반 윈저(Windsor)의자의 스모커스 보우(smoker's bow)타입을 원형으로 하는 오스트리아 박물관에 소장된 영국 사무용 팔걸이의자로부터 파생했다. 원형 스모커스 보우는 인체와 부딪혔을 때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가 모두 둥글게 처리되고 해부학적으로 엄격하게 고려되어 쿠션처리가 안되어 있어도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특성 때문에 당시 영국의 사무실과 도서관 및 맥주집에서 자주 사용된 의자 타입이었다. 오스트리아 박물관의 그 것이 나무좌판, 가죽등판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스테슬러 의자는 가죽좌판, 나무등판의 구성을 보인다. 또한 꼬인다리라는 없애고 H형으로 다리가 지지 받으며 금속신발이 첨가된 스테슬러의자는 원형타입에 대한 복제정도가 다른 로스가구보다 비교적 적다. 스테슬러 의자는 프리드리히 오토 스미트(F.O. Schmidt)사 제작이다. 스테슬러 의자를 사용한 곳은 하버펠트(Haberfeld)주택, 프리드만(Friedmann)주택, 만쯔(Manz)대학 출판서점, 부인클럽이며, 프리드리히 오토 스미트사 제작의 스테슬러 의자 팔걸이-첨가-변형을 사용한 곳은 만쯔대학 출판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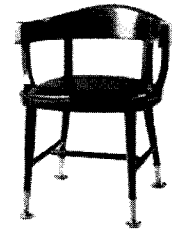
a) 로스의 스테슬러 의자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18세기 영국로 색슨가구인 원저 의자의 스모커스 보우(smoker's bow) 타입의 형태



b) 로스의 스테슬러 의자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바로 전 시대의 콜린스 & 록스(Collins & Lockhart)사의 의자



c) 로스가 디자인한 스테슬러(Stoessler)의 의자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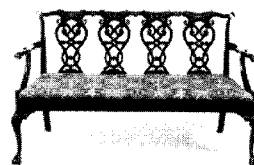
d) 만쯔(Manzi)주택에서 사용된 로스의 스테슬러 의자의 변형된 형태

<그림 4> 스테슬러(Stoessler)의 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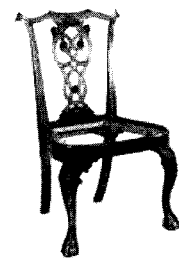
4.3. 영국의자

영국의자는 오스트리아 박물관에 소장된 18세기 영국로 색슨 가구의 치펜데일, 헤플화이트, 퀸 앤, 윈저 시대의 의자 원형을 스미트(F.O. Schmidt)사와 요세프 바일리히가 복제한 타입이다.

(1) 치펜데일(Chippendale)의 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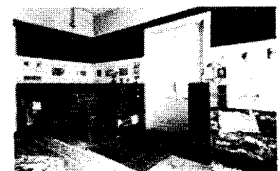
a) 로스의 치펜데일 의자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케이힐의 버리(Kateshill, Bury) 가택에서 사용된 18세기 영국로 색슨 가구인 치펜데일 벤치의 의자의 형태



b) 로스가 디자인한 치펜데일(Chippendale) 의자



c) 랑거(Langer) 주택에서 사용된 로스의 치펜데일 의자의 등판이 쿠션처리되고 손잡이가 추가된 변형



d) 쿠흐너(Kuhn) 주택에서 사용된 로스의 치펜데일 의자의 등판과 좌판이 가죽처리되고 카브리요 다리 변형

<그림 5> 치펜데일(Chippendale) 의자

치펜데일 의자는 18세기 영국 케이실 버리(Kateshill Bury)저택의 식탁벤치를 원형으로 하는 오스트리아 박물관의 치펜데일 의자의 복제이며 스미트사 제작이다. 치펜데일 의자를 사용한 곳은 히르쉬(Hirsch)주택, 쿠호너(Kuhner)주택, 스타이너(Steiner)주택, 만델(Mandel)주택이다. 팔걸이추가 변형을 헨첼스(Hentschels)주택에, 쿠션 등판 및 손잡이추가 변형을 랑거(Langer)주택, 보스코비치(Boskovits)주택에 사용한다. 스미트사 제작의 가죽등판, 가죽좌판 그리고 캐브리올 다리(cabriole legs)의 변형을 사용한 곳은 크라우스(Kraus)주택과 쿠후너(Kuhner)주택이다.

(2) 헤플화이트(Hepplewhite) 의자

헤플화이트(Hepplewhite) 의자는 18세기 후반 영국 헤플화이트 의자를 원형으로 하는 오스트리아 박물관 헤플화이트 의자의 복제이며 스미트사 제작이다. 헤플화이트 의자를 사용한 곳은 하버펠트(Haberfeld)주택, 로젠펠트(Rosenfeld)주택, 헨첼스(Hentschels)주택이다. 헤플화이트 의자의 방패-등판형(Shield-back)을 투르노프스키(Turnovsky)주택, 슈발쯔발트(Schwarzwald)주택, 루퍼(Rufer)주택에, 그리고 부채-등판형(Fan-back)을 할반쿠르쯔(Halban-kurz)주택, 스트라썸(Strasser)주택에 사용한다. 오스트리아 박물관에 소장된 또 다른 헤플화이트원형을 변형한 패딩등받이-변형을 사용한 곳은 뢰벤바흐(Loewenbach)주택이다.



a) 로스의 헤플화이트(hepple white)의자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18세기 영국로 색슨 가구인 헤플화이트 의자



b) 루퍼(Rufer)주택에서 사용된 로스의 헤플화이트 의자의 방패등판형(Shield-back)



c) 할반 쿠르쯔(Halban-kurz)주택에서 사용된 로스의 헤플화이트 의자의 부채등판형(Fan-b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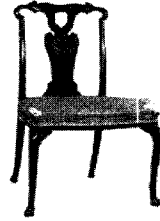
d) 뢰벤바흐(Loewenbach)주택에서 사용된 로스의 헤플화이트 의자의 변형 형태

<그림 6> 헤플화이트(Hepplewhite) 의자

(3) 퀸 앤(Queen Ann) 의자

퀸 앤 의자는 18세기 중반 퀸 앤 의자를 그 원형으로 하는 오스트리아 박물관의 퀸 앤 의자의 복제이다. 퀸 앤 의자가 사용된 주택은 리터 폰 바우어(Ritter von Bauer)성이다. 박물관 원형에 대한 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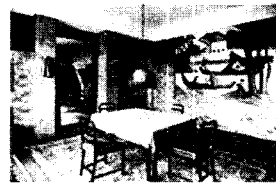
걸이 변형을 사용한 곳은 골드만(Goldmann)주택이다. 퀸 앤 의자의 사다리 등판형(ladder-back)을 사용한 곳은 스테슬러(Stoessl)주택, 사다리 등판형(ladder-back)의 변형을 사용한 곳은 브룸멜(Brummel)주택이다.



a) 18세기 영국로 색슨 가구인 퀸 앤 의자로부터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윌리엄 폰 바우어(Ritter von Bauer)성에서 사용된 로스의 퀸 앤 의자의 형태



b) 스테슬(Stoessl)주택에서 사용된 로스의 퀸 앤 의자의 사다리 등판형(ladder-back)



c) 브룸멜(Brummel)주택에서 사용된 로스의 퀸 앤 의자 사다리 등판형 b)의 변형



d) 골드만(Goldmann)주택에서 사용된 로스의 퀸 앤 의자의 팔걸이 추가 변형

<그림 7> 퀸 앤(Queen Ann) 의자

(4) 윈저(Windsor) 의자

윈저 의자는 18세기 윈저 의자를 그 원형으로 한다. 원형인 윈저 의자는 1700년대에 경제적인 제조과정 때문에 영국로 색슨 실내공간에서 특히 많은 사랑을 받아 19세기에는 거의 모든 영국 실내공간에서 사용되었다. 원형 윈저 의자는 스테슬러(Stoessler) 의자 및 토네트(Thonet)사의 굵은 나무로 제작되는 곡목의자(Burgholz)의 원형이기도 하다. 윈저 의자는 원형 타입의 복제이다. 윈저 의자를 사용한 곳은 로스의 자택, 헨첼스(Hentschels)주택, 포글(Vogl)주택과 쿠호



a) 18세기 영국로 색슨 가구인 윈저 의자로부터 영감을 받아 로스 자신의 주택에 사용된 로스의 윈저 의자



b) 로스의 윈저 의자의 부채등판형(Fan-back-Windsor) 변형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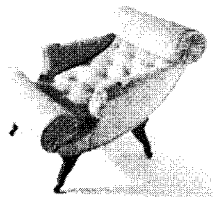
c) 포글(Vogl)주택에서 사용된 b)의 윈저 의자

<그림 8> 윈저(Windsor) 의자

너(Kuhner)주택이다. 전통적 원저 의자의 부채등판형(Fan-back-Windsor)의 변형을 사용한 곳은 로스의 후반기 벡크(Beck)주택과 포글(Vogl)주택이다.

4.4. <다리가 편한>(Knieschwimmer)-안락의자

<다리가 편한>-안락의자는 1901년 영국 햄프톤 앤드 선스(Hampton & Sons) 가구업체 뉴 셰이피드 이스턴 체어 (New Shaped Eastern Chair) 안락의자 원형의 복제이다. 오랫동안 "로스가 디자인한 2개의 배개를 가진 침대안락의자"로 통용되어진다. <다리가 편한>-안락의자는 다리바퀴가 달린 것과 바퀴가 달리지 않은 두 타입이 있다. 스미트사 제작의 <다리가 편한>-안락의자를 사용한 곳은 프리드만(Friedmann)주택, 골드만(Goldmann)주택, 포글(Vogl)주택, 뮐러(Mueller)주택, 쿠호너(Kuhner)주택이다. 미국 캐나다인 미션 오크(Canadian Mission-Oak)형의 변형을 사용한 곳은 골드만 앤드 살라츠(Goldmann & Salatsch)양복점이고, 캐나다인 모리스 체어(Morris-Chair)형의 변형을 사용한 곳은 크라우스(Kraus)주택이다.



a) 로스의 <다리가 편한>-안락의자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바로 전 시대의 New Shaped Eastern Chair사의 안락의자

b) 로스가 디자인한 <다리가 편한>-안락의자



c) 골드만(Goldmann)주택에서 사용된 로스의 <다리가 편한>-안락의자



d) 프리드만(Friedmann)주택에서 사용된 로스의 <다리가 편한>-안락의자



e) 골드 맨 앤 살라츠(Goldmann & Salatsch) 양복점에서 사용된 미션 오크(Mission-oak)형의 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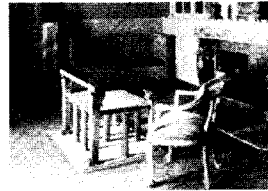
f) 크라우스(Kraus)주택에서 사용된 모리스 체어(Morris-chair)형의 변형

<그림 9> <다리가 편한>-안락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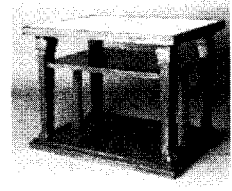
4.5. 로마 탁자

로마 탁자는 고대 로마 폼페이 로마 탁자를 원형으로 만들어졌고, 피에르 폰테인(Pierre Fontaine)에 의한 콤피에즈(Compiègne)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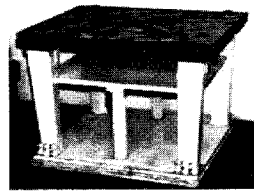
의 로마 탁자나 또는 임마누엘 폰 사이델(E.V.Seidl)이 디자인한 로마 탁자로부터 파생했다. 로마 탁자는 스미트사 제작이다. 로마 탁자를 사용한 곳은 헨첼스(Hentschels)주택이다. 스미트사에 의한 여러 개의 로마 탁자 변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중 한 변형은 사각 대신에 둥근 천판, 대리석 대신에 나무 무늬목 재료로 제작되었다.



a) 로스의 로마탁자에 영향을 미친 바로 전 시대의 콤피에즈(Compiègne)성의 로마탁자의 형태



b) 로스의 로마탁자에 영향을 미친 사이델(E.V.Seidl)에 의한 바로 전 시대의 로마 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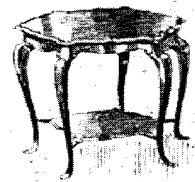
c) 로스가 디자인한 로마탁자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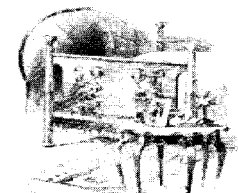
d) 헨첼스(Hentschels)주택에서 사용된 로스의 로마탁자

<그림 10> 로마 탁자

4.6. <코끼리 코>-탁자 (Elefantruesseltisch)



a) 로스의 <코끼리 코>-탁자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루 크래프트 캐비닛 워크(Lucraft Cabinet Work)사의 탁자 형태



b) 로스의 <코끼리 코>-탁자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햄프톤 앤드 선스(Hampton & Sons)사의 탁자 형태



c) 로스가 디자인한 여섯다리의 <코끼리 코>-탁자의 형태



d) 로스디자인한 여덟다리의 <코끼리 코>-탁자의 형태



e) 보스코비치(Boskowitz)주택에서 사용된 로스의 <코끼리 코>-탁자의 변형의 형태



f) Tumovsk(투르노프스키)주택에서 사용된 로스의 <코끼리 코>-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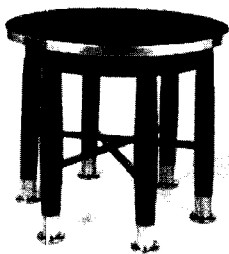
<그림 11> 코끼리코 -탁자

<코끼리 코>-탁자는 1899년 영국의 가구 잡지 캐비닛 메이커스(Cabinet makers)에 소개된 윈저(Windsor) 의자던 햄프톤 앤드 선스(Hampton&Sons)사의 오커서널 테이블(Occasional Table)과 루크랩프트 캐비닛 워크(Lucraft Cabinet Work)사의 코끼리 코 탁자의 원형으로부터 파생했다. 또한 <코끼리 코>-탁자의 휘어진 다리의 전-원형은 중국의 작은 옷칠상과 1897년 제작된 코끼리 코-화분대이다. <코끼리 코>-탁자는 스미트사 제작이다. 여섯 다리 혹은 여덟 다리타입이며 도자기 타일삽입의 천판과 구리띠로 두른 가장자리 그리고 금속신발의 구성을 보인다. <코끼리 코>-탁자를 사용한 곳은 하버펠(Haberfeld) 주택, 투르노프스키(Turnovsky)주택, 바이스(Weiss)주택, 프리드만(Friedmann) 주택, 로젠펠트(Rosenfeld)주택인데 타일 대신에 석판천판의 것도 이중 포함된다. <코끼리 코>-탁자의 동물형태-여섯 다리변형을 사용한 곳은 골드만(Goldmann)주택이고, 치펜데일형 동물다리와 금속천판의 변형을 사용한 곳은 보스코비치(Boskowitz)주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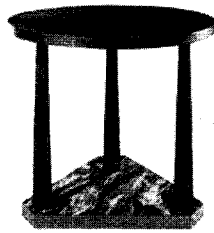
4.7. 보조탁자와 식탁

(1) 보조탁자

보조탁자는 비더마이어 시대의 세 다리 혹은 여섯 다리 혹은 여덟 다리 등근 보조탁자 그리고 19세기 서아시아식 영국 보조탁자의 원형으로부터 파생했다. 스미트사 제작의 금속가장자리를 두른 여섯 혹은 여덟 다리의 비더마이어식 등근 보조탁자를 사용한 곳은 하버펠트(Haberfeld) 주택과 스투슬(Stoessl)주택이다. 대각선 대신에 평평한 판자로 연결된 비더마이어식 여덟 다리-보조탁자를 사용한 곳은 크니제(Knize)살롱이다. 비더마이어식 세 다리-보조탁자를 사용한 곳은 크라우스(Kraus)주택과 만쯔(Manz)대학 출판서점이다. 꽃



a) 로스의 보조탁자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18세기 비더마이어 시대의 보조탁자로부터 파생되어(a에서 e번까지) 하버펠트(Haberfeld)주택에서 사용된 로스가 디자인한 여섯 다리-보조탁자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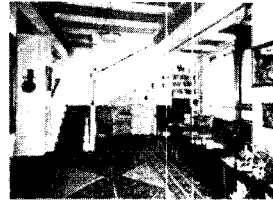
b) 만쯔(Manz)대학 출판서점에서 사용된 로스가 디자인한 세다리-보조탁자의 형태



c) 크라우스(Kraus)주택에서 사용된 로스의 세 다리-보조탁자 b번



d) 뤼벤바흐(Loewenbach)주택에서 사용된 로스의 슬빙다리-보조탁자



e) 크니제(Knize)살롱에서 사용된 로스의 여덟다리-보조탁자



f) 로스의 보조탁자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19세기 서아시아식 영국로 색슨 탁자로부터 파생(부터 h까지)되어 스트라세(Strasser)주택에서 사용된 로스의 보조탁자



g) 쇼이(Scheu)주택에서 사용된 로스의 보조탁자



h) 바이스(Weiss)주택에서 사용된 로스의 보조탁자

<그림 12> 보조탁자

병과 술병 다리의 비더마이어식 등근 보조탁자를 사용한 곳은 뤼벤바흐(Loewenbach)주택과 루퍼(Rufer)주택이다. 영국식 보조탁자의 원형은 아시아의 보조탁자이며 등근상판과 네 다리를 결합한 형태이다. 영국식 보조 탁자를 사용한 곳은 로스주택, 바이스(Weiss)주택, 소보트카(Sorbotka)주택, 프리드만(Friedmann)주택, 스트라세(Strasser)주택, 루퍼(Rufer)주택, 뮐러(Mueller)주택이다.

(2) 식탁

식탁은 세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진다.

첫번째 식탁은 등근 다리판, 가는 중간다리, 등근 천판의 식탁타입이다. 이 타입을 사용한 곳은 랑거(Langer)주택, 히르쉬(Hirsch)주택, 쿠호너(Kuhner)주택, 골드만(Goldmann)주택, 뤼벤바흐(Loewenbach)주택이다. 두번째 식탁은 원목 사각형의 늘릴 수 있는 식탁타입이다. 이 타입을 사용한 곳은 스타이너(Steiner)주택, 스투슬러(Stoessler)



a) 히르쉬(Hirsch)주택에서 사용된 로스의 식탁



b) 슈타이너(Steiner) 주택에서 사용된 로스의 식탁



c) 슈발츠발트(Schwarzwald)주택에서 사용된 로스의 식탁



d) 보스코비치(Boskovitsch)주택에서 사용된 로스의 식탁 c의 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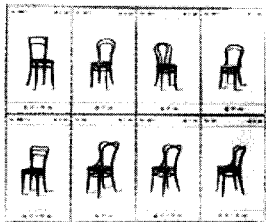
<그림 13> 식탁

주택이다. 세번째 탁자는 각형의 다리위에 등글거나 다각형의 중간 다리 그리고 등근천판의 식탁타입이다. 이것을 사용한 곳은 슈발츠발트(Schwarzwald)주택이다. 세번째 식탁타입은 다수의 다양한 변형타입을 보이며, 울타리 형태를 가진 다리구조의 변형을 사용한 곳은 히르쉬(Hirsch)주택과 보스코비치(Boskovits)주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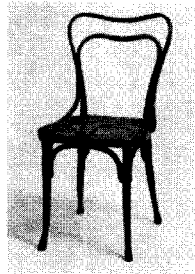
4.8. 카페 무제움(Cafe Museum)과 카페 카푸아(Cafe Capua)의 의자와 탁자

(1) 카페 무제움(Cafe Museum) 의자 및 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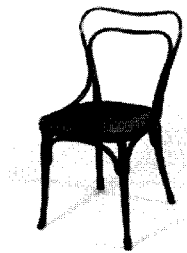
카페 무제움 의자는 원저 의자를 원형으로 하는 토네트(Thonet)사의 굵은 나무로 제작하는 곡목의자(Burgholz) 14호와 코흔(Kohn)타입의 248호와 30호로부터 파생했다. 카페 무제움 의자는 야코브 앤드 요세프 코흔(Jacob & Josef Kohn)사 제작의 대량생산 곡목의자이다. 코흔 타입 248호의 미학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세개의 등판휼 대신에 두개로 변형된 등판휼과 의자다리 사이에 전체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연결구조 그리고 코흔 타입 30호의 각을 변형한 구조를 보인다. 카페 무제움 의자는 다른 곡목의자와는 달리 굵은 나무막대기의 단면이 원형이 아닌 타원형이어서 견고하며 또한 가볍다. 다른 곡목의자가 마하고니나 팔리산더 색인데 반해 카페 무제움 의자는 붉은 색으로 스테인되어 카페 무제움 실내의 색상구성에서 어둡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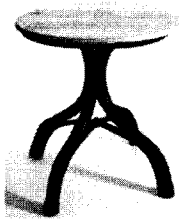
a) 로스의 카페 무제움 의자에 영향을 미친 토네트(Thonet) 의자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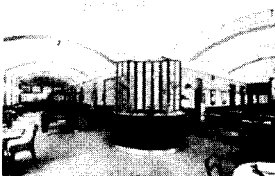
b) 로스가 디자인한 카페 무제움(Cafe Museum) 의자의 형태



c) 카페 무제움(Cafe Museum) 의자의 변형의 형태



d) 로스가 디자인한 카페 무제움 탁자의 형태



e) 카페 무제움(Cafe Museum)에 사용된 카페 무제움 의자와 탁자

<그림 14> 카페 무제움(Cafe Museum)의 의자와 탁자

금속부분의 마하고니 가구와 어두운 녹색의 당구대의 열은 녹색과 함께 중요한 특징을 만든다. 카페 무제움 탁자는 야코브 앤드 코흔사의 네 다리-등근 탁자 908a 시리즈와 토네트 탁자 8번을 변형한 것이다.

(2) 카페 카푸아(Cafe Capua) 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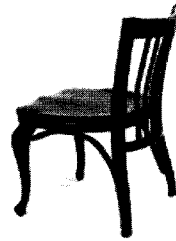
카페 카푸아 의자는 미국 헤이우드 브로스 앤드 사(Heywood Bros. & Co.)의 곡목의자(Burgholz)를 원형으로 하는 토네트(Thonet) 461a와 1661a로부터 파생했다. 토네트사 제작의 대량생산 곡목의자이다. 카페 카푸아 의자는 형태가 과감하게 추상화되어 등판의 디딤판이 원형의 것과는 달리 좌판 아래로 길게 늘려졌다.



a) 로스의 카페 카푸아 의자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헤이우드 브러더스사(Heywood Brothers&Co.) 의자의 형태



b) 로스의 카페 카푸아 의자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토네트 461a와 1661a 의자의 형태



c) 로스가 디자인한 카페 카푸아(Cafe Capua)의 의자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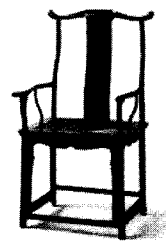


d) 카페 카푸아(Cafe Capua)에서 사용된 로스의 카페 카푸아 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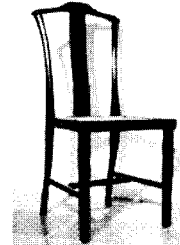
<그림 15> 카페 카푸아(Cafe Capua)의 의자

4.9. 호텔의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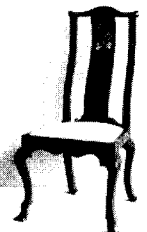
호텔의의자는 중국의 <Guam Mao Shi>, 즉 스승모자 와 같은 형태의 의자라는 원형으로부터 파생한 펼칠 수 있는 다리미 기능을 겸비한 등판을 가진 의자이다. 호텔의의자의 또 다른 원형은 퀸 앤 시대의 의자이다. 호텔의의자는 1924년 이태리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1회 이탈리아 관광클럽 박람회를 위해 디자인된 침대 옆 의자의 기능과 옷걸이와 다리미대의 기능을 수행한다.



a) 로스의 호텔의자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중국 <Guam Mao Shi> 의자의 형태



b) 로스의 호텔의자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퀸 앤 의자의 형태



c) 로스가 디자인한 호텔의의자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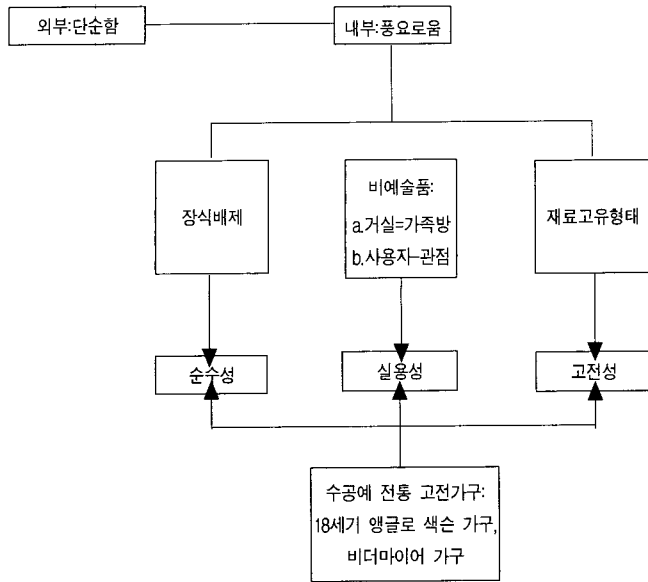
<그림 16> 호텔의의자

<표 1> 로스가구의 종류별 특성 비교

로스가구	원형	(원형의) 복고형	로스가구와 (원형의) 복고형과의 차이점	재질	제작	사용주택	추가변형
세다리 -이집트 스톨	고대 이집트, 세다리-이집트스톨 (기원전 1300년)	Liberty's, Theebs Stool(1884)	복고형보다 땅딸막한 비례	떡갈나무	Josef Veillich	로스자택(1903), Karma(1903), Steiner (1910), Duschitz(1915), Mandel(1916), Stresser(1918), Rufer(1922), Knieze Salon (1927), Brummel(1920)	없음
Stoessler의자	Windsor . Smoker's Bow (19세기 중반)	Collinson&Lock, 팔걸이 의자(1897)	-복고형의 가족등판 대신에 나무등판 -복고형의 나무좌판 대신에 가죽좌판 -꼬인 다리 -H형으로 다리지탱 -금속 신발	호두나무, 가죽, 동	F.O.Schmidt	Stoessler(1899), Haberfeld(1899), Friedmann(1906), Manz대학출판서점 (1912)	-팔걸이 첨거의 변형: 부인클럽(1900), Manz 대학출판서점(1912)
Chippendale의자	Kateshill,Bury가택, Chippendale벤치의자	오스트리아 박물관 W1 176	복고형의 복제	B.마하고너, 직물	F.O.Schmidt	Hirsch(1907), Kuhner(1907), Steiner (1910), Mandel(1916)	-팔걸이 추가의 변형: -등판쿠션과 손잡이 추 가의 변형:Langer(1903), Boskovits(1913) - 가죽등판과 가죽좌판, cabriole legs의 변형: Kraus(1907), Kuhner (1907)
Hepplewhite의자	Hepplewhite의자 (18세기 후반)	오스트리아 박물관 H1299	복고형의 복제	호두나무, 팔리산더, 가죽	F.O.Schmidt	-복고형:Haberfeld(1901), Rosenfeld (1912), Hentschels(1914) -방패등판형(Shield-back): Turnovsky(1902), Schwarzwald(1905), Rufer(1922) -부채등판형(Fan-back): Halban-kurz(1913), Strasser(1918)	-패턴 등판의 변형: Loewentbach(1913)
Queen Ann의자	Queen Ann의자 (18세기 초반/중반)	오스트리아 박물관 H1296	복고형의 복제	자료없음	자료없음	-복고형:Ritter von Bauer성(1925) -사다리 등판형 (Ladder-back): Stoessl(1901)	-팔걸이 추가의 변형: Goldmann(1911) -사다리 등판형의 변형: Brummel(1928)
Windsor의자	Windsor의자 (1700년대)	자료없음	복고형의복제	F.마하고너, 직물	F.U.-P.Werken	로스자택(1903), Hentschels(1914)	<Fan-back-Windsor> 의자: Beck(1908/1929), Vogl(1929)
<Knieschwimmer> -안락의자	자료없음	Hampton&Sons, <New Shaped Eastern Chair>	-복고형의 복제 -다리바퀴가 달린 것 과 안 달린 것의 두 타입 -바퀴가 달린 것은 H형 으로 다리지탱	사슴가죽	F.O.Schmidt	Friedmann(1906), Goldmann(1911), Vogl(1929), Mueller(1928), Khuhner (1907)	-<Canadian, Mission-Oak> 형의 변형: Goldmann&Salatsch(1898 ,99) -<Canadian, Morris-Chair> 형의 변형: Kraus(1907)
로마탁자	고대 로마, 폼페이	-E.V.Seidl의 로마 탁자 (1898) -Compege성(1900)	-Seidl타입은 여섯다리 -Compege성 타입은 열다리 -로스타입은 여섯다리	대리석	F.O.Schmidt	Hentschels(1914)	없음
<코끼리코>탁자	-중국,옻칠교상 -<코끼리코>화분대 (1897)	-Hampton&Sons, <Occasional Table> (1899) -Lucraft Cabinet Work(?) -<코끼리코>화분대 (1897)	-복고형 : O는 여섯다리, L은 다섯다리 -여섯 혹은 여덟다리 -도자기 타일을 상판안 으로 삽입 -금속가장다리를 두름 -금속신발	-여섯다리:참 나무,타일,동 -여덟다리:마 하고너,석판, 구리	F.O.Schmidt	Haberfeld(1902)	-타일 대신 석판의 변형: Turnovsky(1902), Weiss (1904),Friedmann(1906), 깐 들딩(1912) -동물형태의 여섯다리 변 형:Goldmann(1911) -치켄대일다리와 금속 천판 변형:Boskovits(1913)

로스가구	원형	(원형의) 복고형	로스가구와 (원형의) 복고형과의 차이점	재질	제작	사용주택	추가변형
보조탁자	1.비더마이어시대의세 다리, 여섯다리, 여덟다리 등근 탁자 2.서아시아식 19세기 앵글로 색슨탁자	자료없음	자료없음	-H: 호두나무, 구리 띠, 구리신발 -M: 마하고니, 대리석	F.O.Schmidt	1:-여섯다리:Haberfeld(1902), Stoessi,1901) -8다리:Knize살롱(1924) -3다리:Kraus(1905), Manz대학출판서점(1912) -꽃병, 술병다리 :Loewenbach(1913), Rufer(1922) 2.:Weiss(1904),Sobotka(1904),Friedmann (1905),Strasse(1918),Rufer(1922),Mueller (1928)	2의 변형: Scheuf(1922)
식탁	자료없음	자료없음	1.동근 다리하판, 가는 다리중판, 등근 천판 2.원목 사각형 3.각형의 다리하판, 둥글거나 다각형의 다리중판, 등근천판	B:마하고니, 직물	B:F.O.Schmid	1:Langer(1903),Hirsch(1907),Kuhner(1907), Goldmann(1911),Loewenbach(1913) 2:Steiner(1910),Stoessler(1899) 3:Schwarkwald(1905)	3의 변형: Hirsch(1929),Boskovits (1913)
Cafe Museum: 1.의자 2.탁자	Windsor 의자	1:Kohn의 248호, 30호 2:Kohn 908a호, Thonet 8호	1:-248호 개선: 세계의 등받이힘을 두개로 변형, -30호 개선: 의자다리 사이에 전체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연결구조의 추가 -나무막대기의 단면이 원형이 아닌 타원형 -가볍고 견고 -붉은 스테인	1.의자:너도밤나무,식물줄기 2.탁자:너도밤나무,대리석, 동장식	Jacob&Jose Kohn	Cafe Museum(1899)	베니어 좌판 변형
Cafe Capua, 의자	Windsor 의자, Heywood Bros.&Co.	Thonet 461a,1661a	-디테일의 형태가 매우 과감하게 추상화됨 -등판의 뒷판이 원형과는 달리 좌판 아래로 길게 늘려짐	너도밤나무, 마하고니	Thonet	Cafe Capua(1913)	없음
호텔의자	중국<Guam MaoShi>, 혹은 퀸앤의자	자료없음	의자의 기능& 옷걸이와 다리미대의 기능	자료없음	자료없음	-팔걸이포함:Goldmann(1911) -밀라노 호텔박람회(1924)	없음
소 결							
로스가구는 소규모의 가변성 있는 의자와 탁자로 구성된다. 의자의 종류는 등받이 없는 스톨, 등받이 의자, 등받이-팔걸이 의자 그리고 안락의자가 있다.탁자의 종류는 등근탁자와 사각 탁자가 있다.	로스가구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원형은 18세기 앵글로 색슨 가구 (Chippendale;Hepplewhite;Windsor;Queen Ann)와 비더마이어 가구 그리고 기타 가구 (로마; 이집트; 중국;서아시아)이다	로스가구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원형의 복고형은 영국가구업체(Liberty's;Collison&Loe;Hampton&Sons;Luraf Cabinet Work)와 오스트리아가구업체(Kohn;Thonet)의 가구 그리고 오스트리아 박물관의 소장 가구이다.	로스가구는 원형의 복고형을 거의 복제하거나 이 것을 재료, 기능 및 형태에서 약간 변형시킨 것이다.	로스가구는 나무 (떡갈나무; 호두나무; 마하고니)와 가죽및 직물, 금속(구리; 동신발)의 재료로 제작된다.	로스가구는Josef Veillich; F.O.Schmidt사;Kohn사;Thonet사에 의해 제작된다.	로스가구가 사용된 곳은 로스자택; Haberfeld;Langer;Karma;Weiss;Sobotka;Friedmann;Hirsch;Kuhner;Steiner;Goldmann;Rosenfeld;Manz대학출판서점; Loewenbach;Hentschels;Duschitz;Mande;Strasser;Rufer;Knize살롱;Brummel; Ritter von Bauer상;Vogi; Mueller주택과같은 사적공간타입 및 Cafe Museum 과 Cafe Capua과 같은 공공공간타입이다.	로스가구에 대한 추가변형은 각 가구종류별로 재료 및 기능, 형태 등 약간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

<표 2> 풍요로운 실내공간개념과 수공예 전통의 로스가구와의 상호연계성



5. 결론

본 연구는 집의 외부는 단순한데 반해 내부는 최대한 풍요로운 공간이어야 한다는 로스의 공간구성적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순수성과 실용성, 고전성이 공존하는 절충적 특성의 '풍요로운 내부'로서의 독자적 실내공간개념과 로스가구의 독자성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로스의 실내공간을 구축하는 주요한 개념은 장식배제의 개념; 비예술품으로서의 개념; 재료고유형태의 개념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장식의 배제라는 개념은 소모적 개념의 장식에 가려졌었던 재료의 순수성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서 화려한 장식의 외형 대신에 형태의 진실함과 순수성을 강조하는 근대적 사고를 표명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비 예술품으로서의 개념은, 당시 귀족주의적 실내공간타입인 살롱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역사주의 및 비에나 분리와 예술-건축가의 상상력에 의해 실내공간 전체가 '예술작품으로' 스타일화 되는 실내공간개념에 반대한다. 반면에 비예술품으로서의 개념은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거실 중심으로 가구를 사용자 스스로가 직접 선택, 자신의 관점대로 자유롭게 배열하고 배치함으로써 가족 구성원과 사용자 관점을 우선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로스의 인간중심적 사고체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개념에서는 실내공간에서의 장식적인 측면 및 인간의 감성과 신체구조에 적합한 현대적 사고의 실용성이 우선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재료고유형태의 개념으로는 재료의 속성에 충실하게 제작되는 수공예 전통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가구의 복체로서, 재료자체가 지닌 풍성한 아름다움으로 풍요로운 실내공간을 구축해 전통이 지닌 고전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로스 고유의 실내공간개념에서 비롯되어진 로스가구의 독자성은 비형식적 실용성에 의한 18세기 앵글로 색스 및 비더마이어

고전가구의 '원형적 특성'과 기존의 창조적 개념과는 다르게 원형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약간의 변형만을 거침으로써 재료고유형태의 충실성을 강조하는 '시간초월의 복제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로스가구의 독자성은 이미 오랫동안 존재해 오면서 장인의 완벽에 가까운 숙련된 실용적 수공예 가구의 제작과정이 인간에게 가장 편안하고 풍부하게 작용한다라는 로스의 고유한 가구사고체계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정서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로스가구라 지칭되었던 거의 복제에 가까운 치펜데일, 헤플화이트, 윈저, 퀸 앤 타입의 앵글로 색스 및 비더마이어 변형가구등의 순수성과 실용성, 고전성의 특성과 함께 홉가구 및 비맞춤가구로서의 특성과 자유로운 가구배치가 당시의 가구개념과 다른 로스가구의 독자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스가 구축해내고자 하는 '풍요로운 실내공간'을 이뤄내는 기본적인 가치체계를 가구와 접목시켜 분석하였으며, 이의 결론으로서 로스는 순수성과 실용성, 고전성이라는 세가지 기본 개념을 융합시켜 "풍요로움"이라는 실내공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분석했듯이 로스가 지닌 순수성과 실용성, 고전성이라는 가치체계는 '풍부'하면서도 현대와 고전개념이 접목된 가장 인간적인 현대의 실내공간을 구축할 수 있는 기본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A.Opel, *Ins Leere gesprochen*, Verlag Georg cres, Paris-Zuerich, 1921
2. A.Opel, *Trotzdem*, Brenner Verlag Innsbruck, 1931
3. Eva B. Ottlinger, Adolf Loos, Residenz Verlag 1994
4. Burkhard Rukschcios & Roland Schacheb, *Adolf Loos:Leben und Werk*, Salzburg/Wien, 1982
5. 강우영, 아돌프 로스의 라옴플란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논, 1997
6. 김동현, 아돌프 로스와 르 꼬르뷔제 건축의 내외부 개념에 관한 연구: 1920년대의 주거건축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논, 1995
7. 김주애, 아돌프 로스 건축의 공간적 내포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논, 1997
8. 유동광, 아돌프 로스의 건축 구성원리와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논, 1997
9. 이세영, 아돌프 로스 주택에서의 라옴플란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울산대 석논, 1997
10. 김광현, 세기말과 세기초의 건축: 장식과 침묵, 공간, 9210
11. 김병윤, 연속을 위한 저항: 아돌프 로스의 건축을 중심으로, 공간, 9210
12. 김병윤, 아돌프 로스와 건축의 정신적 혁신, 공간, 8504
13. 김진규, 아돌프 로스의 건축과 이론, 공간, 8508
14. 문형식, 귀머거리들이 들려라: 비인의 세션운동과 아돌프 로스에게서 배우는 것, 공간, 9210
15. 알도 로시, 아돌프 로스: 연계와 진보의 건축, 공간, 9210

<접수 : 1999. 11. 9>